

“신산업지도 완성 국가예산 확보 절실”

송하진 도지사, 이종배 국회 예결위원장·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과 국가예산 간담회서 초당적 협력 요청

전북도는 28일 도청에서 국가예산 최다 확보를 위한 행보로 국회 예결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과 회담을 가졌다.

이날 송하진 도지사는 이종배 국회 예결위원장,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과 국가예산 간담회 자리에서 새만금 수질개선, 신산업구축 동력사업, 문화관광, 농생명산업 등 전북도 국가예산 사업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송 지사는 “특히, 전북도와 도민이 기대해 온 신산업지도 완성을 위해 국가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절실하다”며 “전북도의 신산업 육성과 기반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도는 본격적인 국회 예산심의를 앞서 국회 예결위원장을 상대로 사전에 전북도 국가예산 확보 사업을 인지도 키고, 향후 국회 상임위·예결위에서 신규·증액 반영시킬 계획이다.

정부예산안에 과소·미반영된 사업 중 새만금·SOC 사업을 비롯해 산업체질 강화 및 융복합 미래신산업, 농생명산업 등 국화단계 반영이 필요한 중점사업 15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해양무인이동체 기술 검증에 최적화된 새만금 내수면에 구축하는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을 국화단계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새만금농지를 활용한 고품질 농기계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사업의 예타 통과 및 사업비 반영과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의 핵심사업인 ‘탄소섬유 활용 수소저장용기 시험인 증 플랫폼 구축’ 사업비 반영도 건의



전북도는 28일 도청에서 국가예산 최다 확보를 위한 행보로 국회 예결위원장의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과 회담을 가졌다.

했다.

전북이 감점을 가진 농생명산업 분야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국가 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사업과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대응의 체계적인 교육과 체험 기반 조성을 위한 ‘농업 기후변화대응 교육기반 구축’ 사업비 반영을 요청했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의 시제품 생산 지원 시설 구축을 위해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의 실시계획 용역비 반영도 건의했다.

더불어, 도민의 자존의식을 고취하고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관광 분야로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사업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전국화와 세계화를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고창·부안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의 국비 반영도 건의했다.

새만금·SOC 분야에는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의 예타 통과와 기본계획 수립비와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사업’ 설계용역비 반영을 요청했다.

특히, 새만금 트라이 포트(Tri-Port) 조속한 완성을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조기 착공과 ‘신항만 건설’의 조기 완료, ‘새만금항 인입철도’ 예타 통과를 건의하며, 당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환경복지 분야에는 새만금 수질개선 및 혁신도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김제 용지 정착농원의 현업축사 매입’ 사업비와 익산 잠정마을에 대한 피해복구 및 치유 대책을 위한 사업인 ‘환경오염 피해지역 친환경복원사업’ 국비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전북 주요 현안사업인 제3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은 금융위 권고사항을 이행하며, 금융중심지 기능이 작동하기 시작한 혁신도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건의했다.

또, 국회에서 장기 표류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과 함께, 새만금사업비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강소도시권 교통시설 지원 특별법 제정 등 현안 법안 마련에도 힘이 돼주길 부탁했다.

이에 이종배 예결위원장은 “전북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산업지도 대개조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당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가질 것”이라며, “특히 새만금 SOC 조기 구축 등 주요 현안 해결에도 전북에 힘을 모아주려 호남 동행, 전북 동행의 힘을 실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에코에너지원 남원공장 준공식

아시아 최대 규모 목재펠릿 공장

남원시는 28일 오후 3시, 어현동 농공단지에서 이환주 시장, 양희재 시의회의장, 김수홍 국회의원, 이형세 전북지방경찰청장, 조환익 전한국전력 사장 등 이 참석한 가운데, 에코에너지원(대표이사 유성민) 남원공장의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에코에너지원 남원공장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목재펠릿 공장으로, 이날 준공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특히 축하화환을 받지 않은 대신 기부 받은 쌀(10kg 400포)을 남원시에 기부하는 행사로 대체되어 훈훈한 마음까지 전달할 수 있었다.

친환경산업을 선도하는 에코에너지원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우드펠릿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기업으로, 그동안 남원공장 설립을 위해 750억원을 투자해 60여명

의 고용인원을 목표로 약 3년 동안 투자협약 및 입주계약 등 제반절차를 거쳐 최근에 준공을 마쳤다.

남원공장 제조시설 면적은 39,650㎡(1만2천평)로, 우선 부대시설 면적 3,255㎡(1천평) 규모가 1차 준공하고 향후 2차 공장도 들어설 예정이다. 에코에너지원은 2016년 설립해 2020년 연 매출 167억원으로 세계 각국에 펠릿을 납품하고 있다.

한편 이환주 시장은 “아시아 최대 목재펠릿 기업으로 부상할 에코에너지원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남원에 들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지속적인 인프라 정비 및 홍보·마케팅을 통해 전국의 우수기업들을 활발하게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원택 의원, 농작물재해보험 품목별 가입률 제고 필요

농작물재해보험의 지난해 가입률이 첫 40%를 돌파해 45.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벼 품목을 제외하면 31.8%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이 양적인 성장에서 벗어나, 품목별 가입률 제고를 위한 미시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의원은 “지속되는 기후위기와 자연재해 속에 지속가능한 영농활동을 위해 정부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가입률이 저조한 품목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의 보험가입 주저 이유를 청취하고, 상품에 대한 미시적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가입률 제고를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이용호 의원,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사업 대거 확정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8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에 ‘남원 이백~운봉’, ‘남원 인월~이영’, ‘순창 쌍치 쌍계~금성’, ‘임실 청운~임실’ 구간 2차로 개량사업 등 총 8개 사업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8월 여타 사업에 이어 이번 비에타구간 사업까지 총 8개 사업이 반영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며 “주민들의 교통 안전성과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간담회

고규창 행안부 차관, 청년공동체 쉐리언연구소 방문·의견 청취

전북도는 28일 고규창 행안부 차관,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 청년공동체 구성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청년공동체 ‘쉐리언연구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도내 청년공동체의 다양한 활동과 소통을 지원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

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정책이다. 이에, 심사를 통해 선정된 청년공동체에 행사개회, 콘텐츠 제작 등에 필요한 과업수행비와 전담멘토 멘토링, 교류협력 등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에서 거주하고 생활하는 청년들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청년과 중

앙정부 및 지자체의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간담회가 열린 쉐리언연구소는 지역 장인들과 협업한 수공예품 브랜딩 및 판매, 지역 문화유산 및 청년 네트워크 행사 기획·운영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청년공동체 사업의 선도적인 팀으로 평가받아 간담회 개최팀으로 선정됐다.

이날 간담회는 ▲청년공동체 쉐리언연구소의 청년활동 및 청년소통공간 소개, ▲지역 정착기(지역생활) 공유, ▲정부 및 지자체에 바라는 점에 대한 건의 및 소통의 순서로 진행됐다.

설치희 쉐리언연구소 대표는 “청년들

이 지역에서도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보다 많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청년이 살아가는 전북이 되도록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함께 고민하고 문제점들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모 집	전주교육대학교·우석대·원광대 군산대·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상 담
스피치 · 긴장해소 · 면접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옥입니다. 저렴한 등록금,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감정위원 • 한국스피치,올림픽회 전북회장 • 전북언론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V, TBN 출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평생교육사 • 심리상담사 • 사회복지사 • 전주매일 부사장	
< 각 지역별 모집 > < 누구나 학습가능함 >		
학교별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긴장해소(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익산, 논산, 강경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퍼러더업,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군산, 서원, 부안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고급,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